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베드로후서 2:1~20.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그릇된 교리에 속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40~45분)**

칠판에 다음과 같이 적는다. 배도: 진리로부터 돌아서는 것임.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이 표현이 과거, 현재, 또는 미래에 적용되는가?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셨다고 학생들에게 말해준다. 사탄이 베드로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똑같은 속임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반원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에게 중이를 준다.

각 그룹에게 아래에 있는 성구를 하나 이상 배정해 주고, 속이기 위해 사용된 방법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한다. 아래의 성구를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다.

- 베드로후서 2:1~2
- 베드로후서 2:12~13
- 베드로후서 2:18~19
- 요한1서 2:9~11
- 유다서 1:4
- 유다서 1:16
- 유다서 1:19

각 그룹이 그린 그림을 반원들에게 보여주게 한다. 각 그림과 대응되는 성구를 읽고 그것이 주는 경고에 대해 설명한다.

베드로 시대에 교회 회원들이 배도를 접하고 있었음을 설명한다. 성도들은 비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진리를 저버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거부한 교회 내부 사람들에게도 박해를 받았다. 이러한 배도자들은 특별히 미약한 간증을 지닌 새로운 회원들에게 위협한 존재였다.(예수와 그의 사도의 생애와 가르침, 427~428쪽의"배경"참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적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다음 말씀을 나눈다.

"이 사업이 주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감언이설의 궤변과 교묘한 의도를 가진, 아마도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의심을 퍼뜨리고 이 대업이 놓여진 기초를 흔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태양 아래서 그들의 날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한동안 의심하는 사람들과 회의론자와 비판자들의 갈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유사하게 그들은 태양 아래서 시들고 잊혀질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94년 4월, 76쪽; 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60쪽)

베드로 시대의 성도들의 경험을 읽어봄으로써 우리가 배도를 이겨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음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칠판에 다음 참조 성구를 적는다.

- 요한1서 2:4~5
- 요한1서 2:15
- 요한1서 3:9~10 (또한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요한1서 3:9 참조)
- 요한1서 4:7~10
- 유다서 1:20

여러 학생들에게 칠판에 있는 성구를 하나씩 배정해 주고 배도를 피하는 것에 관해 그 성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찾아보면서 소리내어 읽게 한다. 그 권고를 다 읽은 후에, 학생들에게 칠판 앞으로 나와서 그들이 읽은 성구 옆에 그들이 찾은 것을 적게 한다. 이 성구들에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강화시켜 속임을 이겨내게 하는지에 관해 토론한다.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의 권고를 읽는다.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분쟁과 불화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과 증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을 배도의 길로 이끌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는 데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혼동되거나 당황하거나 배도의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Conference Report, 1983년 10월, 89쪽; 성도의 벗, 1984년 1월호, 93쪽; 또한 모사이아서 23:14 참조)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그릇된 교리와 관습을 우리가 인식하고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간증한다.

**베드로후서 2:20~22. 복음이 참됨을 알고 난 후에 우리의 간증에서 돌이킨다면, 복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을 때보다 더욱 나쁜 상태에 빠지게 된다. (15~20분)**

진흙이 담긴 그릇 하나와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과자, 빵, 또는 다른 음식이 놓인 조그만 접시 두 개를 가져온다. 두 학생에게 칠판 앞으로 나오라고 한다. 각 학생에게 진흙으로 공을 하나씩 만들게 한다. 두 사람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한 학생에게 진흙으로 공 하나를 더 만들게 한다. 각 학생에게 음식이 담긴 접시를 주고 먹어 보라고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어떤 학생이 음식을 먹기에 더 좋은 상태에 있는가? 그 이유는?

한 학생을 택해 **베드로후서 2장 20~22절**을 읽게 한다. 그 학생이 읽을 때 다른 학생들이 귀기울여 듣게 하고 각 구절이 조금 전의 실물 공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게 되면 손을 들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손에 진흙이 묻은 학생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는가?
- 손이 깨끗한 학생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는가?
- 회개한 후에 다시 죄에 빠질 때, 왜 우리는 더 나쁜 상태에 처하게 되는가?

베드로가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교회 회원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학생들에게 **엘마서 24장 30절과 교리와 성약 82편 3절**을 속으로 읽게 한다. 학생들에게 이 구절들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어떻게 보강해 주는지 설명해 보게 한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이 말씀한 주의 사향을 나눈다.

"침례, 성신의 은사, 성전 의식과 인봉 등 필요한 구원 의식을 받은 사람은 이에 따른 성약을 준수해야 한다. 그는 믿음으로 견디어야 한다.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이나 다른 사람이 아무리 훌륭히 봉사했더라도 그가 말년에 가서 마음을 바꾸어 '끝까지' 의롭게 살지 못했다면 그가 한 모든 훌륭한 행위는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사실 처음에 봉사하다가 나중에 타락한 사람은 베드로의 말대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베드로후서 2:22 참조)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겠다." (용서가 낳는 기적, 114쪽)

다음의 질문들에 관해 토론함으로써 끝맺는다.

- 복음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 복음을 배웠다가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더 좋은데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 복음은 위험을 무릅쓸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제공해 주는가?